“쓰레기통 같던 마음, 명상으로 싹 청소”



산문 밖의 禪

이용태(58) 한국명상총협회 경영위원장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2600년 전, 인간은 ‘마음’이라는 것의 정체를 알게 됐다. 몰랐던 스스로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의 깊은 성찰과 각고의 노력이 나은 뜻깊은 사건은 26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수많은 삶에서 뜻깊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마음을 본다는 것, 자신의 가장 깊고 고요한 곳에 다녀온다는 것, 그것은 분명 인간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하고 특별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이 남긴 분명하고 선명한 법(法)은 구하고자 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많은 방법론과 결론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 마음의 문제는 다시 인류의 특별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명의 속도에 지치고 환경의 부작용으로 아픈 시대, ‘나’ 없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인류가 다시 찾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나’였다. 스스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다시금 인류는 ‘나’가 있었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2600년 전의 뜻깊은 사건에 다가가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는 ‘나 찾기’는 붓다가 남긴 깨달음의 다름 아니다. 붓다가 처음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보았던 것처럼 2020년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있다. 누군가는 이미 ‘나’를 보았고, 누군가는 ‘나’를 조금씩 보기 시작했다. 좀 더 일찍 ‘나’를 보기 시작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을 만난다. 한국명상총협회 이용태 경영위원장이다. 그는 왜 한국명상총협회의 경영위원장이 되었을까. 그리고 좀 더 일찍 명상에 눈뜬 그의 방법론과 결론은 무엇일까.

삼성그룹 입사 후 퇴사 미국유학 국제변호사 자격취득 임원 재입사 삶의 부침 해결 108배가 명상으로 불자 부인 인연으로 명상에 입문

명상의 시작 108배

2010년, 오십을 바라보는 이 위원장은 어느 날 108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108배를 하기 시작했다. 왜 108배였는지 자신도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문득 108배였다.

“주위에서 운동도 된다고 하고, 또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고 해서 시작을 했죠. 처음엔 숙제처럼 했어요. 밥을 먹고 회사에 가는 일처럼 했어요. 삶에 부침이 없을 수 없잖아요. 저에게도 삶에 부침이 일기 시작했어요. 무언가에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번뇌라고도 하죠. 회사에 가면 어느새 마음은 회사에 없고, 집에 돌아오면 또 마음은 집에 없었죠. 해결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불편한 일, 불편한 사람 …, 마음속이 쓰레기통 같았어요.”

이 위원장은 불심 깊은 집안에서 자랐다. 이 위원장은 108배가 문득 떠올랐다고 말했지만 그의 108배는 ‘문득’이 아니라 ‘인연’이었다.

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이 위원장은 다른 임원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 왔다. 좀 더 빠른 길이었다.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근심의 씨앗이었다. 특별함으로 인한 인과였다. 조직 내에서 근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날이 갈수록 무거웠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 위원장은 졸업과 동시에 삼성그룹에 입사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위원장의 삶에 그림자는 없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신입사원 전체 연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보지 못했던 자신을 본다. 자신보다 월등히 우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자신이 한 없이 작게 느껴졌다. 이 위원장은 연수를 마치고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떠난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는 확실한 ‘나’로 살고 싶었다.

마침내 이 위원장은 국제변호사가 되어 그룹의 임원으로 복귀한다. 그렇게 특별한 길을 걸었던 이 위원장이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마주하게 된 근심들은 그 특별함으로 인한 인과였다.

“108배를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108배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부터 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생각에서 점점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이 위원장은 근심으로 가득 찼던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다. 108배를 하는 15분 동안 몇날 며칠을 고민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오늘 해야 할 일, 내려놓아야 할 일, 받아들여야 할 일 등 오랫동안 얽혀 있던 일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 때가 첫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명상이라는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때였어요. 지금에서 생각해볼 때 아마도 그 때가 명상에 대한 첫 번째 경험이자 처음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은 ‘집중’이었어요.”

오래된 미래, 미얀마 행

이 위원장이 108배를 시작한 지 5년이 흘렀을 때였다. 이 위원장은 다시 한 번 중요한 인과와 마주한다. 이 위원장은 삼성그룹을 떠나게 된다. 떠날 때가 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5년 동안 108배를 하면서 많은 생각들과 마주했다. 쌓이면 쌓이는 대로,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받아들이고 털어내는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떠안고 있는 실존의 문제들과 나란히 걸었다. 30여 년간 몸담아온 회사를 떠나는 일이 작은 일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것 역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근심 중의 근심이었지만 이 위원장에게 이제 근심의 위력은 예전과 많이 달랐다.

이 위원장은 마침내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는 미얀마 정부의 법률 고문역을 맡고 미얀마로 떠난다. 그의 오래된 미래였을까. 그는 1년 동안의 미얀마 생활을 통해 그 동안의 시간을 ‘명상’이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길로 연결시킨다.

이 위원장은 일을 하는 시간 외에는 온전히 혼자였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이 위원장에게 동기였고 기회였다. 허기 앞에 놓인 식사 같은 것이었다. 이 위원장이 식사 같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지는 짐작이 간다.

B2면에 계속

이용태 한국명상총협회 경영위원장은…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립대학교(West Virginia University) 로스쿨에서 공부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삼성전자 해외법무그룹장 및 특허팀장(상무), 삼성 SDI 법무실장(전무), 서울반도체 준법지원실장(부사장), 미얀마 연방정부 재정기획부 법률 고문, 특허법인/종합법률 가산 등을 거쳐, 현재 동국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로 일하는 한편, 명상을 통한 불교 전법을 위해 (사)한국명상총협회 경영위원장 겸 (사)한국참선지도자협회 감사로 봉사하고 있다.

INSIDE

B4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범천 관련 도상

B5 윤성식의 붓다 정치학 윤리의 기준과 불교

B6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통제와 자율